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했던 유엔남구 물놀이축제



지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용호별빛공원에서 열린 '제3회 유엔남구 물놀이 축제'가 막을 내렸다. 수영장 외에도 워터 클라이밍 등 각종 물놀이 시설과 물총 서바이벌, 워터버블 파티, DIY 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에는 '같이 놀자, 워터데이'라는 테마로 평소 물놀이 시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을 초청해 별도의 물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얻었다.

남구 1호 탄소중립마을 대연동일스위트아파트

환경 강의로 탄소중립 프로젝트 '첫발'

남구 1호 탄소중립마을인 대연동 일스위트아파트의 탄소중립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7월 1일 아파트 후문 1층 공개공지에서 입주인 30여명이 모여 탄소중립 실천 주민교육 행

사(사진)가 열렸다. 환경교육 전문 강사가 '탄소를 줄이는 탄탄한 마을 공동체'를 주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공동체 특성에 맞춰 함께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의제

를 주민들과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 현장에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행사도 가졌다.

대연동일스위트아파트는 지난 4월 부산시의 탄소중립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연말까지 ▲에너지·자원 절감 목표(5~10%)를 위해 마을주민 참여 유도 ▲기후변화 교육 참여 주민·활동가 등 네트워크 구성 ▲마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방안 제시 등



의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위생과 ☎607-4388

사진으로 보는 구정 소식



김우생 명예구청장 위촉 2025년 제2대 1일 명예구청장에 김우생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28일 위촉돼 BIFC 3단계 개발사업장과 물놀이 축제 행사장 등을 방문했다.



소막마을 폭염 취약계층 물품지원 남구는 폭염에 취약한 우암동 소막마을 150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용 이불, 생수 등 폭염 대응물품을 지원했다.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캠프 남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초등 4~6학년 50명을 대상으로 '2025 여름방학 원어민 영어 캠프'를 운영했다.



청소년 여름 봉사활동 남구자원봉사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적성과 관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다자녀가정 아동 첫 여권 발급 축하금 사업 인기

(은누리상품권 3만원)

남구 개청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행 중인 다자녀가정 아동의 첫 여권 발급 축하금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남구에 거주 중인 다자녀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8세 미만)가 첫 여권을 발급

받으면 축하금 3만원(은누리상품권)을 지원해 주는데 2025년 상반기(1~6월) 총 255건이 접수됐다. 축하금을 받은 어느 학부모는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작은 지출도 부담이 될 때가 많은데 남구가 축하금을 지원해줘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축하금 신청은 여권 접수시 하면 되고, 여권 수령시 축하금이 지급된다. 남구 외 기관에서 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도 남구청 방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민원여권과 ☎607-487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착수

남구·대연의원 거동 불편 노인 가구 방문 돌봄 협약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남구가 관내 대연의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고, 의료와 돌봄의 연계 강화한다.

남구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본격 가

동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남구형 재택의료센터 모델을 마련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사는 곳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복지정책과 ☎607-5644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

대형건설사 10곳 참여

각서(MOU)를 체결했다.

남구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양해

지난 7월 21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체결식에는 김형겸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장과 더불어 롯데건설㈜, 현대

산업개발㈜, 효성중공업㈜, (주)한화건설, (주)대우건설, 세영토건㈜, (주)동도건설, (주)원건건설산업, (주)비에스리츠, 우솔종합건설주식회사 총 10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건설 경기침체로 생존의 위기에 놓인 지역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에는 하도급·건설자재·장비·인력 등 부산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내 긴급 사안 등에 대하여 필요시 건설장비를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과 ☎607-4596

‘남구형 복지’설계 위한 주민 2100명 설문조사

8월말까지 방문 조사… 주민심층면접도 실시

‘남구형 주민복지 설계방안 수립 용역’ 일환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규모 주민설문조사가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주민 2,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도 ▲정신건강 ▲생활 만족도 ▲복지 체감도 ▲지역사회 참여도 등 5개 분야 총 50문항으로 구성된다.

설문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르게 실시되며 조사원이 방문해 직접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수집된 결과는 향후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주민의 정신건강이나 지역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등 그동안 정책화하기 어려웠던 부분까지 세밀히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남구는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심층면접’을 8월에 실시한다. 주민 삶의 경험과 인식, 정책에 대한 기대 등을 심도 있게 듣기 위한 과정으로, 양적 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질적인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정책과 ☎607-4314

대연교 고가도로 아래에 도시숲 조성

남구는 대연동과 용호동을 잇는 대연교 고가도로 하부 일원에 도시숲을 조성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대연교 고가하부 유휴지 공간을 화단으로 꾸며 후파향나무 등 13종 1,843주와 수호초 등 6종 8,990본 등 내용성과 내공해성에 강한 수종을 식재했다. 빛이 잘 들지 않는 구간에는 못 조형물, 경관석, 자갈 등을 설치해 다채로운 경관도 만들었다. 도심경관 개선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까지 기대되는 이번 사업은 2025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성했다.



공원녹지과 ☎607-4532